

주제-01

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에 바람직한 남·북한간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제언

박효근¹*

¹서울대학교 명예교수

[서론]

2018년은 한반도 역사에 오랜 남을 특별한 해이다. 서기 676년에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래 지난 천여 년 간 이 한반도는 한 나라가 통치하였다. 그러나 1945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후 지난 73년간 이 한반도는 열전, 냉정, 화해 시도 등의 격변을 거쳐 왔다. 불과 1년 전만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한반도에 화해, 영구 평화, 공동 번영 등의 주제가 급격히 부상하였다.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 시도가 다행히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면 그 핵심 주제에 농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. 이러한 시점에 한국작물학회가 ‘남북한간의 새시대(?)에 바람직한 농업분야의 협력 방안’을 모색함에 있어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

[핵심 주제]

1.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은 우선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각오하여야 한다.
 - ① 우선 남북한 간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다 (국민소득, 토지생산성 등)
 - ② 양 정부간의 기본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. 목표부터 다르다. 우리는 노동생산성(원/ha)를 중시하나 북한에서는 절대생산량(토지생산성,톤/ha)가 중요하다.
 - ③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다. 우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나 가장 방문하기 힘든 나라이다. 우선적으로 필요한 북한 농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(기본 통계, 연구 시스템 등)가 거의 없다.
2.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언제 어떤 형태로 열릴 것인가?
 - 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관련국들의 이해가 매우 첨예하다. 즉 이는 남북한 양 정부만의 합의 이외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
 - ②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련국들 간의 기본 견해가 매우 다르다
 - ③ 남북간의 새 시대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게 될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예측 불가능이다
3. 남북한간의 새 시대에 바람직한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제언
 - ① 북한 농업 및 생산자 농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
 - ② 지난 20여년간의 대북농업협력사업은 극히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.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. 대증요법(對症療法)의 한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.
 - ③ 이를 위해서는 관선민후(官先民後)의 원칙아래 강력하고 효과적인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
 - ④ 한국작물학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

*주저자: Tel. 02-3472-9611, E-mail. hgpark0722@hanmail.net